

A Case Report on Acute Fibrinous and Organizing Pneumonia in a HIV Patient with Pneumocyst jirovesi pneumoni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감염내과

*허중연 · 노지윤 · 윤영경 · 이재갑 · 송준영 · 정희진 · 김우주

Acute fibrinous and organizing pneumonia (AFOP) is a disease of small airways characterized by alveolar fibrin within the alveolar spaces. Its histological pattern is known as a variant of bronchiolitis obliterans with organizing pneumonia (BOOP). Although BOOP with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patient was occasionally described, its variant form, AFOP with HIV patient has not been reported ever before. Recently, we have experienced an intriguing case of AFOP in HIV patient with pneumocystis jirovesi pneumonia; accompanied AFOP was found with steroid tapering. Chest X-ray and CT scan showed reticulonodular infiltrations and diffuse ground-glass opacity in both lung fields. This case emphasized that noninfectious pulmonary infiltration in HIV patien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천식 조절 상태에 따른 삶의 질과 자기 평가의 비교 분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¹정지예 · ²이용원 · ³신유섭 · ⁴박종원 · ⁵홍천수

배경 : 천식 환자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설문(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for adult Korean asthmatics: QLQAKA)은 천식 환자의 삶의 질을 다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천식 조절 상태 및 폐기능과의 상관관계와 quality of life(QOL) 점수에 미치는 영향 인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 총 199명의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QLQAKA 설문 조사, 자기평가(점수:1~5점), 폐기능 검사 및 peak flow meter(PFR)를 시행하였고, Global initiative for asthma(GINA) guideline 2006년도에 따라, 천식 조절 상태를 조절, 부분조절, 조절되지 않는 군으로 나누었다. 전반적인 천식 상태에 대한 자기 평가 (self assessment)는 5점 평가의 문항 하나를 추가 하여 설문하였다. **결과 :** 천식 조절 상태에 따른 세 군간의 폐기능 검사(FEV1%, FVC%, FEV1/FVC%), PFR %, QLQAKA 4가지 항목(증상, 활동, 정서, 환경영향 영역)과 자기 평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또한, 천식 조절 상태, 폐기능 검사, PFR%와 QLQAKA 4가지 항목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폐기능 검사 중 FEV1/FVC % 만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평가 점수와 상관관계에서는 PFR%, FEV1/FVC %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별, 진단시 나이, 치료기간, 증상기간, 천식과 동반된 증상(비염, 피부염), 천식의 원인(알레르기, 내인성, 아스피린성, 직업성), 흡연여부, PFR%, PFT, 천식 조절 상태, 약물복용단계 중 QOL 점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각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증상영역(증상기간, B=0.008; 천식 조절 상태, B=0.212), 활동영역(진단시 나이, B=0.025; PFR%, B=0.012; FEV1%, B=0.016; FEV1/FVC%, B=-0.014), 정서영역(피부염 존재, B=-0.591), 환경영향 영역(증상기간, B=-0.01; 직업성 원인, B=1.348; 천식 조절 상태, B=0.248; PFR%, B=0.011). 자기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PFR%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앞서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결론 :** QLQAKA에 따른 QOL 점수는 천식 조절 상태와 폐기능 중 PFR%, FEV1%, FVC%와 상관관계를 보이나, QOL 점수에 대한 폐기능의 영향은 활동영역 외에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평가의 경우, FEV1%, FVC%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기평가 점수에 대한 유의한 영향 인자는 뚜렷하지 않았다.